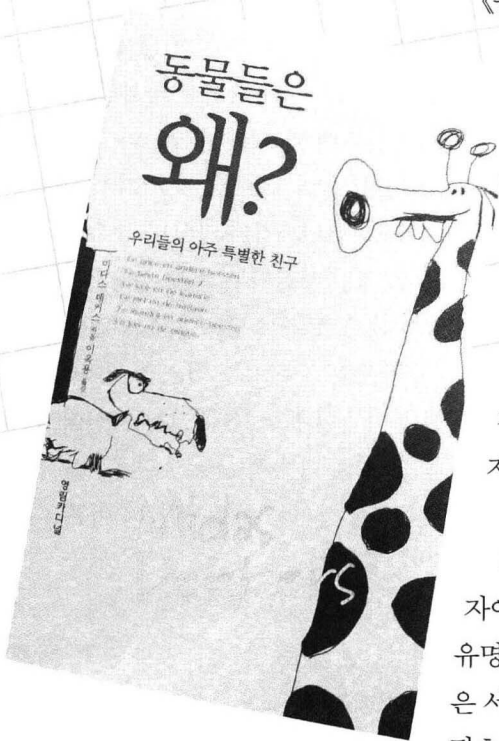


《동물들은 왜?》

반면교사, 동물들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글_ 권오길



(동물들은 왜?)
 미다스 데커스 지음 | 이옥용 옮김
 | 영림카디널 | 359쪽
 | 값 12,000원

《동물들은 왜?》의 원명은 'Selected Animal Stories'로 직역하면 '여러 동물 이야기'가 되겠다. 이 책에서 '여러 동물'은 과연 몇이나 될까? 하나하나 일일이 헤아려봤다. 무려 97종의 동물을 다루고 있다. '동물과 인간'이란 큰 제목에 식용달팽이, 단봉낙타, 판다, 비비, 고슴도치, 다람쥐 등을, '애인'이란 제목에는 집고양이, 성스러운 고양이, 미친 고양이, 작은 고양이, 푸들, 술집 호랑이 등을, '가금'에는 통닭용 닭, 알 낳는 닭, 미운 오리새끼, 개개비, 비둘기, 펠리컨 등을, '곤충 그리고 그 밖에 기어다니는 것들'에는 극피동물, 좀벌레, 검정파리, 사면발이 등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과 동물'이란 제목 속에는 기도하는 여자, 불구 철학자, 겁쟁이, 치즈 접시, 노파, 괴물 등을 다루고 있다. 제목을 특이하고 재미나게 붙인 것이 먼저 눈에 든다.

저자 미다스 데커스(Midas Dekkers)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저명한 생물학자이며, 여러 나라에서 사랑을 받는 저자다. 그의 대표저서인 《시간의 이빨》이 유명하고, 라디오나 TV에서 진행하는 방송도 인기가 높다고 한다. 율진이 이옥용은 서강대에서 독문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후 독일 콘스탄츠 대학에서 수학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독문학박사를 받았다. 율진 책으로는 《집으로 가는 길》《두 번 태어나다》 등이 있다. 그렇다! 네덜란드 사람들이 독일어를 쓴다고 하지... 이 책의 독일어판 제목은 'DAS GNU UND DU' (羊과 너)다.

아시다시피 내 전공은 연체동물학(軟體動物學)이다. 그런 학문도 다 있나 하겠지만, 이런 쓰잘데없어 보이는 학문을 소위 말해서 '기초과학'이라 이른다. 연체동물이란 '몸이 부드러운 동물'이란 뜻으로, 산야에 사는 달팽이(껍질 없는 민달팽이 포함), 강에 나는 고둥, 조개, 바다에 서식하는 소라 조개 무리와 오징어 문어까지를 통틀어 말한다. 연체동물의 종(種) 수도 대단하여서 전체적으로 보면 절지동물(節肢動物) 다음으로 많다. 곤충을 포함하는 절지동물이 제일 많고 다음에 연체동물의 수가 많다는 말이 아니다.

개 눈엔 똥만 보이고 부처님 눈에는 무반 보인다는 말이 맞다! 이 책의 글 중에서 순서상으로 두 번째에 실려 있는 '식용달팽이'가 제일 크게 보인다. 달팽이!? 그게 바로 내 전공하는 놈에 속하니 말이다. 뭐라고 쓰여 있나 어디 보자.

“부활절. 마침내 봄이 왔다. 자연이 깨어난 것이다. 새끼 양들은 초원에서 강충 강충 뛰어다니고, 벼룩은 다리를 짹 뻗고, 모기는 호숫가에서 살 곳을 마련하고, 꽃들은 시들고, 땅 속에서는 기나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무서운 것들이 기어 나온다.(여기까지만 봐도 글 전체가 꽤나 서정적이고 은유적이다.) ... 식용달팽이를 보면서도 내가 지금껏 시를 한 편도 짓지 못한 건 달팽이의 본질 때문이다. 흙진

● 이 글을 쓴 권오길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도여중·고,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제42회 강원도 문화상 학술상(2000), 제13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2002), 제4회 대한민국과학문화상(2003) 등을 수상했고 《달팽이 박사》로 불리며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과학의 친절한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꿈꾸는 달팽이》 《바다는 건너는 달팽이》 《인체기행》 《달팽이》 《생물의 애육살이》 《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 《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 《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 등 다수가 있다.

기로 되어 있을까? 아니면 한국제 껌(국산 껌이 이렇게 유명한가!) 생선도 아니고 육류도 아니다. 현미경에 잡히지 않는 아메바가 괴물같이 부풀어 오른 것이 바로 식용달팽이다.(아주 멋진 상상력이 풍부한 비유다!) ... 샬러드에서 달팽이를 발견하면 보통사람들은 기겁을 한다. 그러나 미식가라면 태연히 드레싱을 달라고 하여 달팽이 집 안에 들어있는 것을 흐르륵 소리를 내며 다 먹어버린다.(식성 좋은 사람들이로군!) 프랑스에는 미식가가 많다. 거기서 식용달팽이를 에스카르고(Escargot)라고 부른다.(우리나라 큰 호텔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비싸 못 먹어봤다, 바보같이) 식용달팽이는 매해 수백만 킬로그램(야! 대단하구나)을 땅 속에서 잡는다. 그런데 실제로 식당에서 먹는 그것의 두 배가 넘는다. 달팽이 농장이 있기 때문이다. ... 많은 요리사들이 달팽이집에 암소 허파나 말고기 또는 다른 재료를 채워 넣는다. 그래서 보통 달팽이 요리는 마늘을 듬뿍 넣어(허파나 말고기의 비린내를 마늘이 죽이는 셈이군) 희미한 촛불 아래 내놓는다. ...”

이런 식으로 97종의 동물을 풀어나간다. 이런 글을 읽으면 여러 동물의 특성, 생태, 생리, 발생 등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외국인들의 생활 습성을 알 수가 있어 좋다. 글에서 이야기 거리를 얻는 것은 물론이고 박식한 지식을 얻을 수 있어 좋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치고 지혜롭지 않은 사람 없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큰 목 중에 ‘나비’ 설명의 일부를 본다. 나비는 동물이다. 모든 동물은 식물(植物)을 식물(食物)로 한다. 그러므로 나비 이야기에서 나비의 먹이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나비유충의 먹이 감인 썩기풀 이야기다.

“썩기풀에 난 센털은 주사비늘 모양을 하고 있어서 사람이나 다른 동물들은 가까이 가기를 꺼린다. 그러나 네 팔나비나 공작나비의 유충은 언짢아하지 않는다.(동식물 간에도 천적인 있잖!) 센털은 규산(硅酸, silica)으로 이뤄져 있으며 때문에 유리처럼 잘 부스러진다. 그런데 부러질 때 모서리 한 쪽이 뾰족해진다. 이 모서리가 피부에 생채기를 내는데,(통풍이란 병이 바로 이렇다) 그 상처 속으로 썩기풀즙이 주입된다. 거기에는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이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식물은 우리 뇌에 비상벨을 울린다. 그러면 뇌는 어서 다친 자리를 긁으라고 명령을 내리는 수밖에 없다.(가렵게 하는 것은 몸에서 분비한 히스타민이라는 물질 때문임) ... 썩기풀을 기른다는 것은 결국 나비를 기른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식물이야기도 심심찮게 들어있다. 세 번째 큰 제목인 ‘가금’(家禽) 자리로 넘어왔다. ‘알 낳는 닭’ 이야기다. 참고로, 제목 옆에는 설명하려는 동물의 그림이거나 이야기의 중요한 대목을 상징하는 그림이 하나씩 다 들어있다. 여기에도 알 낳느라 힘을 쓰는 ‘닭 대가리’ 그림이 그려져 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토종닭은 알을 스무 여개 낳은 다음엔 알 낳기를 멈추고 안기 시작한다. 그러나 개량종들은 품을 줄을 모르고, 죽기 살기로 알만 낳아 제친다. 모성본능을 잃어버린 닭 ... “... 그러던 어느 날, 인간들이 닭의 엉덩이 뒤에서 계속 알을 훔쳐가기 시작했다.(산의 평도 알을 잃고 나면 다시 알을 낳음) 암탉은 낙담한 나머지 매년 60개로 생산량을 높여 손실을 보상하려 애썼다. 그래도 인간은 좀처럼 만족 할 줄 몰랐다. ... 닭 한 마리가 평균하여 1년에 달걀 250개를 낳던 것을 1960년에는 275로 올려놨다.(한 겨울과 한 여름을 빼고 알은 낳는다) 그러나 닭들이 받은 보수는 배은망덕한 것이었다. 닭이 14개월이 되어서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게 되면(옛그제 영계였는데, 어느새 퇴계가 되다니?) 새로운 알 낳는 기계로 대체되고 폐기물처럼 치워진다. 닭들은 날개 꺾인 채 수프 속으로 이동한다.(배은망덕이란 말에 찢끔해진다, 진인하고 이기적인 인간이란 이름의 동물!)”

마지막으로 ‘모래언덕토끼’ 라는 제목의 글이다. “여자보다 남자가 숲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 숲에는 나무가 수 천 그루 있고, 남자가 오줌을 누는데 나무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 남자들은 보통 대는 소피볼 생각을 하지 않지만 숲 속을 거닐 때는 5분만 지나면 어김없이 지퍼를 내린다.(동물들도 이렇게 수놈이 영역표시를 함) 개는 그런 모습을 공감해 준다. ... 그런 짓은 우리 남자 인간들뿐만 아니라 숲속의 모든 동물도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하마는 변을 꼭 참다가 빙빙 도는 분노차같이 꼬리를 탁탁 흔들면서 반경 1미터 너비로 똥을 뿌린다. 그런 식으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한다.”

이렇게 재미나는 동물 이야기가 이어진다. 언제나 말하지만 번역한 글은 어쩐지 썩기풀의 털같이 쿡쿡 찌르기 일췌는데, 이 책은 그렇지 않다. 정성들여 번역한 탓일 것이다. 이야기의 배경이니 역사가 우리와 달라서 확확 다가오지 않는 것은 각오하고 읽으면 좋을 듯. 반면교사라고, 여기, 동물들 이야기는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글**